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 광주의 현실은 '헛바퀴'



음푹 패인 자전거도로



식별 어려운 표지판



장애물에 통행 불가

전용도로 683km 중 264km 정비 필요...예산 없어 손 놔 56개소 213대 고장 방치...공유자전거 대역도 무용지물

광주공항에서 서쪽으로 향하는 자전거 도로(폭 1.6m)를 따라 가던 자전거 운전자가 3m 길이의 지하철 환풍기에 막혀 곡예를 하듯 핸들을 꺾어 차도를 내려섰다.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지 못해 차도를 이용하는 구간은 훨씬 더 많다.

인근 상무역 앞 자전거 도로는 가로등과 버스정비 안내판, 정류장 표지판 등으로 원할한 자전거 이용이 어렵고 흰색 페인트로 그려진 자전거 그림 위에 보란듯이 설치된 변압기와 가로수 등을 피해 차량이 내달리는 도로로 내려서는 자전거 운전자들도 쉽게 찾아 볼 수 없다.

광주를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광주시의 정책이 헛바퀴만 거듭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영합,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목소리만 높일 뿐 체계화한 지원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가 하면, 자전거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두바퀴 정책'도 펼치지 못하면서다.

광주시는 올해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취지로 ▲부실한 자전거도로 정비 및 확충 ▲자전거 보관대 정비 ▲공유자전거 정비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특히 2월 개통하는 KTX와 연계, 광주를 찾는 외지인들이 자전거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양림동 역사마을, 예술의거리, 광주비엔날레 등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하는 '쌍쌍 GO 광주' 자전거 타고 광주 도시여행 사업'도 진행한다.

하지만 광주시가 관련 예산을 삭감하거나 생색내기식 정책에 머물면서 활성화와 목소리만 높일 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당장, 광주시는 지역 전체 자전거 도로(683.83km) 중 정비가 시급한 구간이 38.6%인 264km(238억원)에 달한다고 파악하고 있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그나

마 ▲2013년 19억5000만원 ▲2014년 10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7억으로 관련 예산을 대폭 줄이면서 광주시의 '자전거 정책'에 대한 의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가 예산을 이유로 전체 자전거 도로 중 올해 정비 구간을 13km(4.92%)만 계획해놓은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무늬만 자전거도로'는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자전거 도로 내 자전거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 현황 등을 파악해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현실화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우려도 높다.

이 때문에 KTX와 연계, 광주를 찾는 외지인들이 자전거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양림동 역사마을, 예술의거리, 광주비엔날레 등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하는 '쌍쌍 GO 광주' 자전거 타고 광주 도시여행 사업'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높다. 자전거를 타고 도심 곳곳을 돌아다닐만한 환경조차 조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한 정책 때문에 자칫 외지인들에게 망신을 살 우려가 높다는 지적도 많다.

또 광주시의 공유자전거 대역 방안도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표방한 만큼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을 내놓아야 하지만 지난 2009년 이후 여태껏 달라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광주시는 북구를 제외한 4개구 주민센터와 지하철역 등 56개소에 공유자전거 대역소를 운영, 640대의 자전거를 비치해놓고 이용토록 했지만 시민들에게 철저히 외면받아 북구는 아예 사업 자체를 포기했다. 동구 지원 2동 주민센터와 광산구의회의 공유자전거 대역소도 전무하다. 서구를 제외한 대다수 공유자전거 대역소도 한 달에 2~3회에 그치는 등 저조하다. 시민들에게 외면되면서 방치, 사용이 불가능한 자전거가 213대(33.3%)에 달하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수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이 상황에도 자전거 활성화를 내세워 '무인 자전거 대여소'를 신설하겠다고 밝히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탁상행정을 펼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을 확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 손 본다 동구, 안전진단 C등급...7월 U대회 이후 보수공사

광주시 동구는 1일 옛 전남도청 5·18 민주광장 분수대 정비사업과 관련, 5·18 민중항쟁 35주년 기념행사와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이후 공사를 실시하도록 일정을 재조정했다고 밝혔다.

구가 이날 건물안전진단전문업체로부터 제출받은 '분수대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분수대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 강도·철근배근 상태·기둥·보·슬래브 등 종합안전평가에서 C등급 판정을 받았다.

C등급은 특정대상관리시설물 상태평가 기준인 5단계(A등급~E등급) 중 중간 등급이다.

구는 분수대 구조물에 대한 원형을 그대로 보존한 채 떨어져나간 콘크리트 타설 및 철근 녹 제거, 방수공사 등 전면보

수공사를 실시한 뒤 종합안전평가 등급을 C등급→B등급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는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5·18 민중항쟁 35주년 기념행사(4월 16일~5월 27일)와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7월 3일~14일) 이후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는 조만간 정비사업을 맡을 시설물 계약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시설면적 615㎡(186평)인 분수대는 지난 1971년 설치됐다. 모터펌프(14대)·수중조명등(180개)·분사노즐(577개) 등으로 구성된 분수대 관리는 구에서 맡고 있다. 분수대는 지난 2010년 6월 냉각탑 붕괴사고 직후 가동이 중단됐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민주노총 24일 총파업...대정부 투쟁 강화

노동계의 춘투(春鬪) 분위기가 심상하다.

지난 31일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달 초 각 사업장별로 이뤄진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가 나온 뒤 연금법 개정·공공기관 민영화·대학 구조조정·최저임금 1만원 쟁취 등 주제를 대정부 투쟁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4일 총파업 대회를

시작으로 7일간 '총파업 투쟁주간'을 지정해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인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들은 같은 기간 비정규직 정책 등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노동자 죽이기 정책'으로 규정하고 가두 집회 등을 적극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주노총 광주본부에는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본부 등 산업별 노조 16개가 있으며 조합원 3만4150명이 가입돼 있다. /백희준기자 bjh@kwangju.co.kr

'쫓개기 후원금' 전순옥 의원 8일 출석 통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한국전력 자회사 한전KDN으로부터 법안과 관련한 청탁성 '쫓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 의원을 입건, 소환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8일에 출석해 달라고 의원실 측에 통보했고 구체적인 날짜는 의원실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 전 의원을 비롯한 야당 2명, 여당 2명 등 국회의원 4명에게 직원 568명을 동원,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김도(59) 전 한전 KDN 사장을 입건한 바 있다. /연합뉴스

차대통령 광주 방문날 비방 전단 뿌려져 서구 운전저수지 인근 100여장 수거...제작자 명단도

단 배포 행위를 수사하는 경찰에 대한 부정적 주장이 적혀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에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통령을 욕함으로써 권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라는 글귀도 포함됐다.

특히 전단 하단에 '공동제작자'라는 이

름으로 해외 동포와 전국 국민 100여명의 이름을 적어놓았다.

군산에 살며 대통령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전국 곳곳에 뿌리고 이를 수사하는 경찰에게 개사로, 기저귀 등을 택배로 보낸 인물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단에 게재된 제작자들을 상대로 실제 전단 제작과 배포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전단 배포자를 경범죄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그러나 전단 제작 참여자들에게 대한 수사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단 제작에 참여했다고 기재된 인물들이 실제로 제작에 관여했는지 확인하는 조사와 함께 배포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단 제작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수사 대상에 오르는 것은 아니며, 전단 무단 배포 행위가 현행법 위반이 명백하므로 우선 배포자를 찾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보성 야산 공터서 판당 2000만원 투견도박...19명 경찰서행

○...보성의 한 야산 공터에서 판당 수천 만 원 가량의 투견도박을 한 일당 19명이 경찰서행.

○...1일 보성경찰에 따르면 장모(55)씨 등은 지난 29일 새벽 0시20분께 보성을 녹차밭 인근 야산 공터에 지름 3m·높이 1.5m의 투견도박장을 설치한 뒤 한명당

40만~50만 원의 판돈을 걸고 판당 2000 만 원 가량의 투견도박을 했다는 것.

○...이들은 투견도박을 벌인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600만 원과 무전기 2대 등을 증거품으로 압수한 뒤 달아난 일당 10명의 뒤를 추적 중. /보성=김용백기자 kyb@

2000만원

아파트 담보대출 및 분양 잔금대출

특별 한시판매

최저 연 3.3%~

상기 금리는 APT담보대출 기준이며, 담보물건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근린상가 단독주택 나대지 원룸

담보 비율 : 최대 70%
최저 연 3.8%~

신용대출 (급여소득자) (연금수급자)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대출기간 : 최대 5년
연금리 : 최저 7.0%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옆)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령고등학교 옆)